

신안하의초, 환경·놀이·공간 배우는 꿈두레 대장정 체험학습

전교생 참여,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대서 진행 다양한 놀이 공간 체험 통해 신나게 노는 시간 가졌다

신안하의초등학교는 지난 22일~25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일대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놀이·공간을 배우는 꿈두레 대장정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두 번째 테마는 놀이였는데 다양한 놀이 공간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체력도 기르고 친구들과 즐겁고 신나게 노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학교는 섬지역이라 도시나 다른 지역의 교통 수단, 놀이 공간 등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한데 이번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공항 및 비행기 체험이나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체험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는데 공항도 처음이고 비행기도 처음 타본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3학년 이○○ 학생은

“비행기가 오르거나 내려갈 때 느낌이 놀이 공원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고, 공항이 신기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처음 체험 장소로 런닝맨 555회차 에피소드명을 사용한 다양한 미션이 있는 ‘강강랜드’를 방문했다. 추격전 길건너기, 런닝리전 신인 드래프트, 다트 수도 맞추기, 런닝제전 왕복달리기 등 총 20개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두뇌와 체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5학년 박○○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 시설이 있으면 좋겠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다음 장소로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방문했는데 국내 최초로 ‘작시미술’을 도입하여 미

디어, 오브제 아트 등 다양한 영역을 접목시켜 탄생한 신개념 놀이, 체험 전시관이었는데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리액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쾌한 작품들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사진 촬영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5학년 김○○ 학생은 “재밌고 신기한 사진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니 정말 재미있고 신기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도 방문했는데 컴퓨터의 시작과 발전상을 경험하는 동시에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게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했던 게임들도 해보면서 어른들의 오락 세계를 경험해 보았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대결하는 시간은 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였다.

마지막 장소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좋았던 ‘바운스 슈퍼파크’였는데 이곳은 액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스카이젤린지, 대형튜브 슬라이드, 바운스 트램폴린, 줌코스터 등이



있었다. 학생들이 줌코스터를 타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늘을 나는 모습이 학교에서는 쉽게 경험해 보기 어려운 스릴 넘치는 모습이였다. 2학년 강○○ 학생은 “줌코스터가 높아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도전에 성공해서 뿌듯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정경우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고흥 백양초, 쿠킹클럽3 동아리 활동 시작



고흥 백양초등학교는 지난 27일, 6학년 4명의 학생들이 요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하며 다양한 꿈에 도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획, 실행,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학생중심 교육활동인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우수팀에 선정되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처음 함께한 팀은 7명이었으나 6학년이 졸업하고 남은 5학년 4명이 6학년이 되어 <쿠킹클럽3>라는 동아리를 그대로 이어 더 열성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실천할 예정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영광 법성중, 전주한옥마을에서 즐긴 ‘전통문화체험’ 운영

송수연원장의 기본예절교육·전주비빔밥 체험 진행



영광 법성중학교는 지난 26일 전교생이 전주한옥마을에 가서 전통문화체험을 하였다. 법성중학교는 ‘전통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했수로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에서 진행된 바 있다.

먼저, 한옥마을 청용전통문화원에서 송수연 원장이 진행한 기본예절교육과 전주비빔밥 체험이 있었다. 뒷사람에게 인사할 때 인사를 받

는 이가 들을 수 있도록 인사말을 먼저 한 후 공손히 인사 하는 것이 예의라는 말을 듣고 학생들은 평소 무심코 했던 자신의 인사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4인이 한 팀으로 진행된 비빔밥 체험에서는 팀별 역할 분담으로 돌아가며 채소를 무치고, 유기그릇에 담긴 밥 위에 20여 가지의 식재료를 가지런히 둘러가며 놓으며 가운데에 고기와 고명, 달걀노른자를 올려 맛갈스런 비빔밥을 만들고 점심으로 시식하는 체험을 하였다.

점심 후 전통문화체험의 핵심인 한복 체험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골라 입고 개성있는 머리장식으로 멋스러움을 뽐내며 조심조심 맵시 있게 걸어다니며 한복의 맛을 한껏 즐겼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 용정중, 전교생 지리산 종주 실시

보성 용정중학교는 지난 30일에 시작하여 3박 4일 동안 전교생 지리산 종주를 실시 한다. 이번 지리산 종주를 위해 4월부터 등산화 끈 묶는 법, 산행 시 물발 상황 대처법, 코펠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도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용정중학교 특색활동인 지리산 종주는 개교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리산 종주는 4코스(피아골, 대원사, 백무동, 백사골)로 나누어 실시된다. 학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인솔교사와 학생 132명이 함께한다.

지리산 종주를 앞둔 오늘 출발 전 짐 확인



및 부식 분배 등 최종 점검을 마쳤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지리산 대피소 예약을 못하여 4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지리산 종주 안전하게 마치길 바란다.

보성=김덕순 기자

나주 다도초, ‘책가방 없는 날’ 운영

나주 다도초등학교가 지난 24일 학교에서 학교 특색 교육의 하나인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였다. 매일 실시하는 책가방 없는 날 3번째 주제인 ‘책방나들이의 날’로 초등학교생 전 교생이 함께 참석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교생이 함께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을 방문하여 영화 관람, 지역 서점 견학

및 도서 구입 등의 활동을 하며 책에 대한 관심을 기르고 문화 시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체 영화 관람을 하며 영화 관람 예절을 알아보고, 감상 후 친구들과 서로 느낌을 나누며 예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었으며, 지역 서점에서 다양한 도서 탐색하고 자율적으로 도서를



선택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와 함께 앞으로도 직접 책을 찾아 읽고자 하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나주=송준표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